



구미시가 노인일자리 스쿨존안전지킴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

### 구미 “시민 체감 복지가 우선” 하반기 스마트 통합플랫폼 운영

경상북도 구미시가 20일 올해 운영되는 시민 체감복지정책 긴급 돌봄서비스와 스마트복지 통합플랫폼 등의 신규 사업과 확대되는 복지정책을 밝혔다.

21일 구미시에 따르면 긴급 돌봄서비스는 19세 이상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돌봄지원비로 6600만 원이 투입돼 재가 돌봄·이동지원서비스 등 월 72시간 이내이 지원된다.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전액 면제되고 이외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스마트 복지통합플랫폼은 9200만 원이 투입돼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분산되어 있는 시민의 생애주기별 수요자별 복지분야 정보 통합플랫폼으로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고, 카카오톡 채널로 비대면 온라인 통합창구도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도입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로는 고위험 1인 가구 1900호에 돌봄 스마트 안부확인시스템이 설치됐다. 또 취약어르신 2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맞춤형서비스(가정방문·정서지원·병원동행) 등이 통합관제출동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이 확대된다. 경로당 8개소가 올해 신축되고 노인일자리도 전년 대비 560명 증가 확대된다.

또 시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1월부터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월남전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21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 “외국인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경북, 체류 시 9만 원까지 지원



경상북도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상북도

경상북도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1일 경북도와 경북도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인센티브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로 4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당일형은 1인당 1만 원, 체류형은 숙박 시군 및 숙박 기간에 따라 1인당 2만~9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 글로벌 온라인플랫폼(OTA)에 경북 관광상품을 등록하면 1건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전세기 50명 이상을 모객하면 탑승 인원수에 따라 1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당일형 및 체류형 관광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여행 시작 3일 전까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사전 신청하고 여행 후 내달 15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40년 만에 확 바꾼다

개방형 ‘해양문화 복합공간’ 내년 12월 준공  
계류 567척·요트클럽동 등 바다 레저 거점으로



부산광역시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40년 만에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부산시

부산광역시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40년 만에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해양도시 공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가진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부산시는 20일 시청에서 아이파크마리나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3월 아이파크마리나(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처음 체결한 후 장기간 표류했다.

이에 부산시와 사업시행자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재개를 위한 합의도 출했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레저 산업 관계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실시협약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최근 부산의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 공사 기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해양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 규모를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는 계류시설 567척(해상 317·육상 250)과 전시(컨벤션)시설·요트전시장·요트클럽동·요트케어시설·수영장·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향후 시는 변경된 실시협약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착공할 방침이다.

또 환경영향 평가·교통영향 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 의견 청취·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올해 5월중 공사를 시작하고, 교통체

증 해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운대해변로 확장(6·7차로→8차로)을 우선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발을 넘어 부산의 해양레저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

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복합 해양레저 거점으로 도약하는 단초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시와 기업·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정중복 군수가 찾아가는 군정설명회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기장군

## 기장, 군정설명회로 ‘열린 행정’ 첫 발

24일까지 5개 읍면 순회… 주요 현안 머리 맞대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25년 찾아가는 군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군정설명회는 정중복 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새해 군정 비전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일 장안읍을 시작으로 24일까지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진행된다. 첫 설명회는 장안읍 동부산농협본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정 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 공무원, 기장군의회 군의원, 각 기관 및 단체 대표,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정 보고, 주요 군정 설명, 주

민과의 대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군은 올해 지역별 주요 역점사업과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군정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또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면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정 군수는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새해에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군정설명회는 21일 기장읍, 22일 철마면, 23일 일광읍, 24일 정관읍 순으로 진행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 부산교육청 “초등 말타기 교육합니다”

동명대와 늘봄 업무협약… 교직원 대상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일 동명대와 늘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은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동명대 총장 등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승마 등의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과 부산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해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과 부산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학생과 교직원의 신체건

강·힐링·학습능력 증진 등을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학생에 대한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과 함께 교직원의 복지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교육청은 다양한 협약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학교를 만드는 데에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교통비를 지

원한다. 강서구 및 기장군 내 학교 중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36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가 편도 10km 이상이면 교통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만 원, 연 12만 원을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지급한다. 따라서 올해 사업을 모니터링 후 2026 학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교육청은 교통비 지원뿐 아니라 교직원들이 선호하고 필요를 느끼는 복지혜택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부산시교육청이 동명대와 승마 등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산교육청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노로바이러스는 일상 환경에서도 3일간 생존이 가능하며, 감염력이 높아 예방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개인위생 지키기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먹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누로 30초 이상 손 자주 씻기</li> <li>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li> <li>증상이 있다면 식사 준비하지 않기</li> </ul>

##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물 꼭 끓여드세요”

부산광역시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10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 의료기

관(병원급 이상)에서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올해 2주 차 372명으로 5주 전인 지난해 50주 차 142명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계절적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 직접적인 환자 접촉, 환자의 구토나 분변 접촉 등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시간~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도 나타난다.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시는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한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익힌 음식 먹기, 끓인 물 마시기 등을 당부했다.

부산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부산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